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사전투표율 53.0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 올라
순창, 전국 1위... 전북 전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전국 2위에 올랐다.

특히 순창군은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월 30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도내 유권자 151만908명 중 80만197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4.74%보다 무려 18.27%p 높은 수치다.

〈화보 16면〉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48.63%였으며, 이번에는 4.38% 상승한 결과다.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최고치로, 사전투표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순창군이 유권자 2만14,184명 중 1만6,772명이 투표해 69.35%의 투표율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 신안군(65.61%)보다 3.74% 높은 수치다.

뒤를 이어 진안군은 63.12%, 임실군은 62.09%의 투표율을 보였다. 장수군,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김제시가 그 뒤를 이었고, 정읍시는 57.03%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지는 선거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세 활동은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거 참여 열기는 이전보다 뜨거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경청 투어' 방식으로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유세 전략을 택하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선거 막판 각 정당 도당 위원장들도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막판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사전투표 이틀째 아침 기자와 만나 도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도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내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주권자 도민께서 이걸 심판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이번 선거에 전북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심판하고 이재명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유권자들에게 본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호남은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전국과 비교하여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6월 3일 본투표에서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만큼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오현숙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도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진보정당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오현숙 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퇴출과 불평등을 해소해 반드시 내 삶을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게 새만금을 친환경적인 대전환과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충, 미래 먹거리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상용차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작과 내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전북의 열기가 6월 3일 본투표에서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2025 전주단오'



전주를 대표하는 절기 행사인 '2025 전주단오'가 지난달 3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2025 전주단오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5면〉

극우단체 댓글공작팀 여론조작 정황 '파장'

인터넷 탐사매체 뉴스타파 보도 통해 알려져

이재명 후보 비방 · 김문수 후보 옹호 댓글 달아

공동 기자회견 근거로 국힘과 연관 가능성도 제기

최근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운영

하는 한 댓글공작팀의 여론 공작 행태를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돼 큰 파장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교육을 하는 극우단체 '리바스쿨'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자순군'을 모집해 온라인 댓글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자순군이란 '댓글로 나라는 구하

는 자유승기락 군대'의 줄임말이다.

이에 따르면 자순군은 다수의 네이버 아이디를 동원해 온라인 기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옹호 댓글을 달았다.

뉴스타파는 또 과거 리바스쿨 대표 손모 씨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던 점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측

에서 자순군 활동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순군의 조직적 댓글 활동 정황을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빗대 '선거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단체와 윤석열 정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수사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도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또 시민들의 추가 제보를 촉구하며 "범죄 또는 부정부패 행위 제보 시 획기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지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재훈 기자



도민의 소중한 한표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 오늘 대선 본투표

도내 중기 56곳 '성장사다리' 방식 단계별 지원

전북자치도, 돌음 · 도약 · 선도 · 혁신 · 글로벌 강소기업 등
5단계 성장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총 104억5000만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 56곳을 선발해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도는 기업 규모와 수출 역량 등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2025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신규 참여 기업 5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04억5,000만원 규모다. 이 예산은 이번에 선정된 56개사를 포함해 총 185개 기업에 나눠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돌음기업(연매출 1억~10억원) △도약기업(10억~50억원) △선도기업(50억~1,500억원) △혁신기업(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 100억원 이상 & 수출 50만 달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수출 500만 달러 이상) 등 5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기업 수는 △돌음기업 17개사 △도약기업 15개사 △선도기업 15개사 △혁신기업 4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5개사 등 총 56곳이다.

기업들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국내외 마케팅 등 각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 간 형평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수혜 제한 조치도 강화됐다. 동일 기업이 여러 단계에서 반복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상위 단계에 선정됐던 기업은 하위 단계로 다시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올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혁신기업' 부문이 새로 신설된 점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면서, 연간 수출 5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기업만을 선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기업이 이미 내수와 수출 양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낸 만큼,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도내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경영 체계 도입도 본격화된다. 선정된 모든 기업은 ESG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며, 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의 외형 성장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ESG 기반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나아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며 "도는 앞으로도 혁신과 수출을 선도하는 지역 기업 발굴 ·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공휴일 지정에 따라 6월 3일자 신문 쉽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완주**

완주 2025 대둔산 축제 6.7(토)-6.8(일)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

나의 도전 앨범에 저장해 보, 대둔산 모먼트!

대둔산 비경경 등산대회 | 대둔산 하이킹 (마천대, 은하수 둘레길)

완주군 WANJU-GUN